

국어 해설위원: 기미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8년		6(▽1)	7(▲5)	5(▽2)	2(▽2)
2017년		7	2	7	4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은 2017년 시험과 비교해서 문법/규범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된 반면, 독해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진 특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독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법/규범은 한 문제가 줄어들어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비문학/독해는 무려 5문제가 늘어난 7문제가 출제되어 문학과 더불어 총 12개의 지문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 배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휘/한자의 경우 비교적 쉬운 한자 문제가 2문제 출제되어 어휘/한자 문제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법/규범의 경우 음운론, 의미론,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등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특이점은 이론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서술형 선지들이 출제되어 단순 암기 이상의 지식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충실히 학습해 온 수험생들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고쳐 쓰기 문제 중 ‘연결 어미’에 관한 내용과 고전 문법 문제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결 어미’에 관한 문제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서울시 문제와 유사한 맥락이었므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도 기출 및 기출 변형 문제 학습에 소홀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지난 서울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독해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다가올 지방직/서울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문법/규범뿐만 아니라 독해/문학 문제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한글 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및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 및 문학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중심 내용 찾기, 서술방식 등)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 작품들도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듯이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의 독음이 제시되지 않는 추세이므로 한자의 음과 훈까지 확실히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두 글자 한자의 경우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7.

기미진 올림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로마자 표기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된 표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 ① [X] 예사소리 뒤의 된소리되기 현상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라고 소리 나더라도 ‘Dokdo’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씁니다. 따라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선지가 아닙니다.
- ② [O] 옳은 표기입니다. ‘반구대’는 ‘Bangudae’와 같이 붙임표를 쓰지 않을 경우 ‘Bang-udae(방우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Ban-gudae’라고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선지입니다.
- ③ [X]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발음하므로 ‘Dongnimmun’으로 표기합니다. 또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씁니다. 따라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선지가 아닙니다.
- ④ [X] 행정 구역 단위 ‘리’는 ‘ri’로 표기하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왕리’는 ‘Inwang-ri’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선지가 아닙니다.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언문(諺文)’은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입니다. ‘언간(諺簡)’은 예전에,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입니다. ‘간찰(簡札)’은 편지를 말합니다.

- ① [X]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주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내용은 글의 초반부에서만 잠시 언급된 내용으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X]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이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는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서만 잠시 언급된 내용으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O]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비록 ‘언간’이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지만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던 한문 간찰과 달리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용물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 ④ [X] 첫 번째 문단에서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 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만 드시 여성이 관련된 내용이 잠시 언급되고 있으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은.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 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은**.’은 국어 성적이 **좋은**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쓰기의 과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조사로서, ‘그 녀석이 노력은 하는데, 실력은 아직 그대롭다.’, ‘이 방이 깨끗은 하지만, 너무 좁다.’와 같이 쓰입니다.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수하 성격이 좋으면 국어 성격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② [O]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라고’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③ [X]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서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와 같이 씁니다. 그러나 예문에서 가던 길을 멈추는 동작과 나에게 달려오는 동작은 동시에 겹쳐여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로’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합니다. 따라서 어미 ‘면서’가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므로 ‘고로’로 바꿔 쓴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 ④ [O]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연설이 국민을 설득하는 수단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한다. ㉡ 즐리는 오후 시간에 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져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락의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는 이 글의 주제인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다'와 관련된 문장입니다.
- ② [O] ㉡ '울리는 오후 시간에 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는 '이 글의 주제인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다'와 관련된 문장입니다.
- ③ [X] ㉢은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는 이 글의 주제인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다'와 관련이 없습니다.
- ④ [O] ㉣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는 이 글의 주제인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다'와 관련된 문장입니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 ②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 ③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 ④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가)는 정철의 시조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달’을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는 임제의 <무어별(無語別)>로 임과 헤어진 여인의 원망을 노래한 한시로서, 권위주의와 남녀유별이 엄격하던 시대에 절실한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여인의 심상을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① [X] (가)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베어 ‘달’로 만들어 고운 님 계신 곳을 비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바라보며 관찰하는 대상일 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② [O] (가)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달’로 만들어 구만 리 장천(끝없이 잇닿아 멀고도 넓은 하늘)에 걸쳐 놓고 임이 계신 곳을 비추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가씨는 사랑하는 남군과 헤어지면서도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 이별의 말 한마디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④ [X] (가)의 ‘장천(長天)’은 화자가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달’이 걸려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은 ‘고운 님 계신 곳’입니다.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입니다.

문 6.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졸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서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쏟아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박재구, 「사평역에서」—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박재구의 <사평역에서>는 시인과 더불어 삶에 지친 사람들이 눈 내리는 겨울날 열차 대합실에서 난롯불을 켜며 막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한 시입니다.

- ① [X] ㉠은 대합실 밖에서는 흰 눈보라가 치고, 대합실 안에서는 톱밥난로가 지퍼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퍼지고 있다는 표현은 난로를 지퍼는 모습이 여러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나타낼 뿐,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X] ㉡에서 청색의 손바닥과 붉은 불빛을 통해 대조적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위로 파랗게 언 손을 작은 톱밥난로로 녹이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③ [X] ㉢은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내는 기침소리와 내뿜는 담배 연기를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쏟아 같은 담배 연기’로 묘사함으로써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④ [O] ㉣에서 화자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툭툭난로에 톱밥을 던지는 행위’를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가),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참봉 덕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길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엉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봄봄>은 김유정이 지은 단편 소설로서, 판소리계 소설과 사실시조를 이어받아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해학적 어조와 문체로 형상화하였습니다.

- ① [O]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길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을 통해 마름의 특성을 ‘호박개(빠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습니다.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② [O] 「이놈의 장인님」에서 비속어인 ‘이놈’과 존칭어인 ‘장인님’을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습니다.
- ③ [O] 「장인이 손버릇이 좋지 않은 것, 욕을 잘 한다는 것, 장인이 마름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서 인심을 잃는 것」 등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 ④ [X]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엉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는 뇌물 제공 유무에 따라 장인에게 땅을 뺏겨거나 땅을 받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달재신(안달財神): 몹시 속을 태우며 여기저기로 다니는 사람.

문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賛 ② 協奏
③ 協助 ④ 協商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協贊(화합할 협, 도울 찬)’은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을 의미합니다.
- ② [X] ‘協奏(화합할 협, 이끌 주)’는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를 의미합니다.
- ③ [X] ‘協助(화합할 협, 도울 조)’는 ‘힘을 보태어 도움’을 의미합니다.
- ④ [O]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것이 서로 의논함’은 ‘協商(화합할 협, 헤아릴 상)’입니다.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르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한자 어휘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校訂(학교 교, 바로잡을 정)’은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이라는 뜻으로 문맥에 맞게 쓰였습니다.
- ② [X] ‘交差(사글 교, 다를 차)’는 ‘바슬이치를 번갈아 임명함’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을 의미하는 ‘交叉(사글 교, 갈래 차)’를 써야 합니다.
- ③ [X]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의미하는 ‘裁裁(결단할 결, 마를 재)’를 써야 합니다. ‘決決(결단할 결, 건낼 제)’는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는 말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 ④ [X] ‘提高(글 제, 높을 고)’는 ‘쳐들어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을 의미하는 ‘再考(다시 재, 생각할 고)’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10. ㉠ ~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 **맥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그러므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그러므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오류의 유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 ‘우연의 오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에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법 중 정언 삼단 논법에 따른 예로서 오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O] ㉡ ‘매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라는 논증에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매매어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 ③ [X] ㉢ ‘결합의 오류’는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는 집합(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미국 선수 각자)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해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 ④ [X] ㉣ ‘분해의 오류’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는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다)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논술 시험 답안)도 역시 그 성질(탁월하다)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합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문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아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찍잡히 몰두하게 되었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제시문은 글의 진술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건축가가 짓는 건물은 그 재료와 다르다’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 ① [X]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추구한 그림과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한 그림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② [X]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어떤 복잡한 것(사물, 개념)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③ [O]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하다’에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④ [X] 신라의 육두품 중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을 강수, 설총, 녹진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에서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에서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에서 고흐는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작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에서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특 플러스 - 글의 서술 방식

(1) 묘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는 진술 방식

예 귀뚜라미의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 위에 포개져 거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 두 날개는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2) 논증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 방식으로, 전제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방식

예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이는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며, 무엇보다 일인(日人) 스스로가 만든 옛 지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3) 분석

어떤 복잡한 것(사물, 개념)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예 소나무의 잎은 뾰족하고, 줄기는 겹질로 싸여 있으며 뿌리는 키 정도의 길이로 뻗어 있다.

(4) 설명

주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서술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서술 방식

예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말로 된 문학이며, 글로 된 문학인 기록 문학과 구별된다.

(5) 비교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 공통점에 주안점을 두어 진술하는 방식

예 사스는 초기에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 열이 38도 이상 오르고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숨가쁨 등 전형적인 호흡기 질환의 특징을 보인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작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것’은 의존 명사 ‘것’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형태이고, ‘갈’은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가’ 뒤에 ‘를’보다 구어적인 ‘라’이 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관형어 뒤에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좋은 걸’은 옳은 띄어쓰기입니다.
- ② [X]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제3 장’과 같이 뒤에 이어지는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한편 ‘장’은 ‘글의 내용을 구분한 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제3장’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③ [O] 의존 명사 ‘차’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④ [O] ‘차’가 주거나 경과에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참고로, ‘차’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일 때는 ‘연구차/인사차/사업차’와 같이 앞말에 붙여 씁니다.

문 14.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깍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깍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깍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 ④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운의 변동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깍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깡는]이 된 후에 다시 비음화(교체)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되므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X] ‘깍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라 받침이 연음되기 때문입니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참고로 ‘음운의 탈락’은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가 + 아서’가 ‘가서’로, ‘울 + 는’이 ‘우는’이 되는 것 따위를 말합니다.
- ③ [X] ‘깍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깡꼬]가 된 후에 다시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깡꼬]로 발음되므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운의 도치’는 한 단어나 어군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을 말하며, 배꼽(빋굽 < 빋복)의 ‘비’와 ‘기’ 위치를 바꾸는 것 따위를 말합니다.
- ④ [X] ‘깍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깡찌]가 된 후에 다시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깡찌]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쳐나게 넘어서는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독해 유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추론하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어떠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 [O] 세 번째 문단의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를 통해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X] 세 번째 문단의 ‘~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를 통해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기술적 변형을 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인간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 기술의 한계 내에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인간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O] 두 번째 문단의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를 통해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문단의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④ [O] 첫 번째 문단의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쳐나게 넘어서는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를 통해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의미 관계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반의 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상호 배타적인 상보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는 정도 반의어,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반대 방향을 전제하는 방향 반의어로 나뉩니다.

- ① [X] 한 쪽을 부정하면 곧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이 되어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입니다. 그러나 ‘크다/작다’는 중간항이 존재하는 등급 반의어로서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중간 크기의 경우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② [O] ‘출발/도착’은 방향 반의어로서 한 단어의 부정(출발하지 않았다)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도착하지 않았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 ③ [O] ‘참/거짓’은 상보 반의어로서 한 단어의 부정(참이 아니다)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거짓이다)을 함의합니다.
- ④ [O] ‘넓다/좁다’는 정도 반의어로서 한 단어의 의미(넓다)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좁지 않다)을 함의합니다.

+기특 플러스 - 단어의 의미 관계의 종류

- 유의 관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관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관계인 동의 관계를 유의 관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간혹-이따금, 매니저-관리인, 모름지기-마땅히, 와-산, 백부-큰아버지, 보조개-볼우물, 부추기다-조장(助長)하다, 소금-염화나트륨, 숙환(宿患)-지병(持病), 어위크다('너그럽다'의 옛말)-관대하다, 얼우다-결혼하다, 옥수수-강냉이, 일치(-一致)-부합(符合), 작야(昨夜)-지난밤, 잘못을 되풀이하다-전철(前轍)을 밟다, 죽사라-생사, 친구-벗, (긴장을) 풀다-늦추다, 항용-늘
- 반의 관계:** 한 쌍의 단어가 어떤 의미상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요소만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의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상보반의어, 서로 맞선 방향을 전제로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방향반의어,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정도반의어로 나뉩니다.
㉠ 살다-죽다/여자-남자(상보 반의어), 위-아래/부모-자식(방향 반의어), 가깝다-가난하다/높다-낮다(정도 반의어)
- 상하 관계:** 두 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합니다.
㉠ 예술 > 문학, 웃음 > 미소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꼴을 ㉠ 술북리 하딴 天命을 疑心하싹씩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브르리 ㉢ 하딴 天命을 모르싹씩 꾸므로 ㉣ 알외시니
 (말씀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딴'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중세 국어의 특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X] '술북리'는 '아뢴 사람'으로 해석되므로 '술북- + 이'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술다'는 '사뢰다(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의 옛말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숯-'으로 나타납니다.
- [X] '뵈아다'는 '재촉하다'의 옛말이므로 여기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 '뵈아시니'가 되었습니다.
- [X] '브르리 하딴'이 '부를 사람이 많지만'으로 해석되므로 이때 '딴'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브르다'는 '부르다'의 옛말이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하다'는 '많다', '크다', '높다'를 의미하는 옛말입니다.
- [O] '알외시니'는 '알리시니'의 의미로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때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외시니'는 '알- + -외-(사동 접미사) + -시-(높임 선어말 어미) + -니'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알외다'는 '알리다. 효유하다(깨달아 알아들도록 타이르다). 아뢰다'의 옛말입니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어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정답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X] 두 번째 문단의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을 통해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O] 첫 번째 문단의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에서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X] 두 번째 문단에서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고 하면서 두 음식 문화를 비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월병이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임을 알 수는 없습니다.
- [X] 첫 번째 문단에서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없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종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다.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종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옹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종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졸공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종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요?”

종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느냐?”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문제 해설

제시문은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으로 성진(소유)이 꿈을 깨는 장면입니다.

㉢ [O]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르면,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현실: 천상 세계의 육관 대사와 성진) →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꿈: 소유의 유년기) →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꿈속의 꿈: 소유가 꿈 꿈) →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꿈: 꿈속의 육관 대사와 성진)’입니다.

+기특 플러스 - 작품 분석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갈래: 한문 소설

연대: 조선 후기(조선 숙종)

배경: 중국 당나라(시간), 형산 연화봉(장소)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 인간적 욕망의 절제

성격: 전기적, 불교적

특징: ① 몽중몽(夢中夢) 구조임

② 당시 유교 사회의 귀족이나 양반들의 생활 이념이 반영됨

의의: 양반 소설의 대표작, 몽자류(夢子類) 소설의 효시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문 20.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소설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승상’은 ‘중’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옹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고 말하면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 ② [X] ‘승상’은 종이 돌 지팡이로 난간을 쳐서 꿈에서 깨어난 후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희롱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승상’은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꿈에서 깨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승상’은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느냐?”라고 말하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기 전에 그의 진의를 의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환술(幻術):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 ④ [X] ‘승상’은 꿈속에서 현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지,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19. ㉠ ~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소설

출제 빈도 | ★★★★★

문제 해결 TIP

주인공 ‘성진(소유)’이라는 이름을 통해 지문이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운몽(九雲夢)>은 조선 숙종 때에,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 소설로, 육관 대사(六觀大師)의 제자인 성진(性眞)이 양소유(楊少游)로 환생하여 여덟 선녀의 환신인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나 깨어 보니 꿈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